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보도자료)

주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2층)

분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257, 1층(용당동)

(☎ 061)283-3767 FAX 061)276-3767

Homepage : jnwds.kr

E-mail : happy2763763@daum.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제 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목포시 사전투표소 23곳 편의시설 및 장애인 투표 안내
지원 도우미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배포일 : 2024.4.25(목)

매 수 : 총 3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목포시 사전투표소 23곳 모니터링 실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애인 투표 안내 도우미 지원 부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문애준 / 이하 ‘전남여장애인’)는 2005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전남지부로 출범하여 ‘목포시’에 소재지를 두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빈곤,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폭력예방·근절 활동, 모성권-재생산권, 자기결정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지역 여성장애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입니다.
3.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4월 5일(금) 목포시 사전 투표소 23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습니다.
4. 투표소 모니터링은 자체 체크 리스트를 기준으로 투표소의 ▲경사로 설치, ▲장애인주차장 설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및 사용의 편의성, ▲장애인용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투표 안내 도우미 지원, ▲2인 동반 투표 보조, ▲승강기 설치, ▲점자유도블럭, ▲휠체어 비치 등을 중점 조사하여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비한 시설에 관한 결과를 제출하고 다음 지방선거때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5. 목포시의 투표소에서는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 23곳의 투표소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이 제공되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투표안내 도우미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들이 투표 편의를 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투표 보조 2인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용 기표대의 부재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휠체어 비치가 부족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은 곳이 있어 투표소의 접근성이 미흡했습니다.

6.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가장 중요시하는 접근성, 주차장, 화장실을 통합하여 통계를 내었을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부적절한 시설이 5곳, 장애인주차장이 미흡한 시설이 3곳,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3곳으로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개선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7. 앞으로도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들과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과 차별 없는 참정권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투표 과정에서의 접근성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